

장흥군, 병원 2개소 친환경 쌀 납품 협약

장흥종합병원·장흥우리병원과 협약식 이번달부터 급식용으로 매달 납품 예정

장흥군은 지난 4월 29일 관내 병원 2개소(장흥종합병원·장흥우리병원)와 장흥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납품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중순 장흥군수, 김동국 장흥종합병원장, 김규정 장흥우리병원장, 박기승 농협 장흥군지부장, 김재기 장흥군친환경연합회장, 이남용 고마정미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지원하고자 장흥군과 의료기관, 친환경생산자단체 등이 뜻을 모아 추진했으며, 올해 5월부터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이 관

내 병원 2개소에 급식용으로 매달 납품된다.

협약에 참석한 각 병원장과 생산자단체 대표는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본 사업이 지역의 모 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주요 병원에 친환경 쌀을 납품하여 '친환경 메카' 구현에 작은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본 사업이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기관에 친환경 쌀을 급식용으로 납품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병원과 친환경 쌀 생산농가 등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지역문화 이끌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한다

오는 21일까지 참가자 모집...다음달부터 9월까지 교육

완도군은 청년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3일부터 21일까지 '완도군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 교육'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문화 기획자를 꿈꾸는 20~30대(1983년~2002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모집 인원은 12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나 책임 참가비 10만원을 선 수납한 후 80% 이상 교육 수료 시 전액 환급한다.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 교육'은 지역 청년이 기획자의 시선으로 청년문화를 주도하고, 콘텐츠를 직접 제작 및 실행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청년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한다.

교육 과정은 준비-기획-마케팅-실전 4단계를 통해 ▲지역 문화와 연계한 문화 콘텐츠 기획, ▲문화기획 프로젝트 실습, ▲현장 탐방 및 워크숍,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관계자, 문화 기획자 등 지역 문화 주체들의 특장을 통해 지역 사회에 진입해 문화 기획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예정이 다.

또한 16주간의 교육 과정 후 직접 제안한 기획안 중 우수작에 대해서는 2022년 예산에 반영하여 기획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완도의 청년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제 취·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완도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시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이민혁기자

강진군,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8일까지 8개 동아리 모집... 최대 100만 원 활동비 지원

강진군은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청

년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

업이다. 창업, 취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역특산품 먹거리 개발 등 4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과 봉사,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 동아리 당 최대 100만 원

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49세의 청년들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동아리이며, 관련 서류를 갖춰 군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신청 또는 우편(등기우편만 가능)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 작은영화관·청소년복합문화센터 7월 개관

이달 말까지 모든 공정 완료...구도심 활성화 거점 기대



해남군 작은 영화관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7월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읍 해리에 건립중인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는 4,539

㎡ 부지에 연면적 2,171㎡, 4층 건물로 1층은 영화관, 2~3층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1층 작은 영화관은 132석 규모의 상영관 2개와 휴게공간이 위치한 군민 문화공간 공간으로 활용된다. 주민 제안심사를 통해 '해남시네마'로 영화관 명칭이 결정됐으며, 현재 공정을 90%를 마치고,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영화관 수탁운영자를 선정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현재 인테리어, 조명, 주차장 조성 등 막바지 공사만을 남겨둔 상태로 5월 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층은 댄스 연습실, 개인·단체연습실, 녹음실에서 방송 댄스와 보컬 교습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학습실과 휴게공간이 들어선다. 3층은 북카페와 함께 3D 프린터 활용, 요리 교실 등이 운영될 창작공작실을 비롯해 다목적강당과 사무실 등으로 채워진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은 시설 대부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은 후순위로 소액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내놓은 지역 가족단위 문화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창의적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은영화관 건립은 민선6기 당시 장소 문제로 한차례 무산되었다가 민선7기 출범 후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1990년대 중반 마지막으로 극장이 문을 닫은 이후 30여년 가까이 영화관이 없었던 해남군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게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 건립으로 그동안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인근 대도시를 찾았던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간담회

최대 3억 육성자금 지원

장흥군은 지난 4월 28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후계농업경영인(이하 후계농) 9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후계농으로 선발된 농업인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의 융자 지원(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장흥군연합회)과 연계,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 농업 분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후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시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사전 철저한 방역 하에 후계농업경영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촌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의 감소 등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첨단농업을 이끌어 갈 우리군 후계농업인과의 소통 시간을 갖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농촌에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젊은 농촌, 활기찬 영농 생활이 가능하도록 후계농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